

세월호 이어 또 ... 정부 위기 관리 능력 상실

리뷰 2015

④ 메르스 사태

메르스는 우리나라 위기관리 능력의 한계를 거듭 확인해 준 사태로 기록됐다. 초기 대응에 실패한 세월호 사태의 오류를 되풀이 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라는 대한민국 의료의 위상은 물론 국민의 자존심까지 추락시켰다.

메르스 사태는 국내 병원의 취약한 감염병 관리, 응급실·입원실 등 후진적 병원 문화 등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중국 관광객이 격감하고 경기가 침체하면서 우리 경제도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여론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메르스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의 협조와 의료진의 노력이 더해졌다. 결국 치명률을 전 세계 평균(38.3%)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전염병 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다.

초기 대응 실패 우왕좌왕

의료 위상·국민 자존심 추락

중 관광객 급감 경기침체로

‘청정’ 광주는 U대회 성공개최

특히 광주시는 인천·울산과 함께 메르스 청정지역을 유지했으며, 메르스사태가 진행되는 동안에 ‘2015유니버시아드’를 성공리에 개최해 국격을 높인 것으로 평가 받았다. 전남의 경우는 메르스 진원지인 평택성모병원 입원 환자를 간호한 사람이 전남을 찾아 비상이 걸렸으나, 별다른 확산이나 의심 환자가 발생 없이 일단락됐다. 이 같이 광주·전남은 메르스 발생 2개

월 만에 모든 관리 대상자의 격리 조치를 해제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신속한 질병 관리 능력을 과시했다.

국내에 메르스 환자가 처음 확인된 건 지난 5월 20일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등을 여행하고 돌아온 68세 남성이 고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난 지 9일 만에 부인과 함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병원에서 입·퇴원을 반복, 바이러스를 옮긴 뒤였다.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 날부터 같은 병실을 썼던 환자와 그 가족 등을 중심으로 환자는 계속해서 늘어났다.

결국 메르스 발생 열흘 만에 1차 진원지였던 평택 성모병원이 휴진을 결정했다.

첫 사망자에 이어 곧바로 3차 감염자가 발생하며 메르스 공포가 전국을 휩쓸자, 보건당국은 뒤늦게 감염병원 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특히 국내 최고 의료기관이라고 자부하던 삼성서울병원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하면서 이재웅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메르스의 기세는 6월 말 이후 꺾였다. 7월 5일 이후에는 환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고, 같은 달 27일에는 마지막 자가격리자가 해제되면서 정부가 사실상의 메르스 종식을 선언하기도 했다. 누적 격리자만 약 1만 6000명, 감염자 186명이 메르스와 힘겨운 싸움을 벌였고 이 가운데 38명이 숨졌다.

초기 대응 실패 이후, 정부는 사태 극복에 온 힘을 기울였고 국민과 의료진이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보태면서 사실상의 종식 상태를 이끌어냈다.

이후 후진적인 병문안 문화를 바꾸기 위한 병의원들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개인 위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크게 개선됐다. 행정적으로도 질병관리본부의 격상과 역학조사관 확충 등의 후속조치가 진행 중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리옹, 광주, 그리고 통영

함정임 칼럼



프랑스 남동부 론알프스 지역에 위치한 리옹은 로마시대 형성된 고대 도시로 프랑스에서 파리 다음으로 큰 도시이다. 리옹을 생각할 때면 나는 뤼미에르 형제의 영화박물관과 그곳에서 활동한 작가 누보 로망 작가 마셀 뷔토르의 소설 ‘변경’을 떠올리곤 했다.

세계 영화사에 빛나는 ‘첫 영화, 첫 장면’의 거리와 뷔토르의 소설 제목 ‘변경’의 뜻이 파리에서 로마에 이르는 21시간 동안의 열차 이동에 따른 주인공의 ‘의식의 변모’, 즉 ‘변신’임을 흥미롭게 되새기며 리옹 여행을 꿈꾸곤 했다.

여행자가 파리에서 리옹으로 가려면, 이 파리 리옹 역에서 초고속 열차를 타거나, 자동차를 렌트해 프랑스 와인의 대명사 부르그뉴 지역을 순례하며 내려가는 방법이 있다.

파리 리옹 역은 센 강을 사이에 두고 오스테르리츠 역과 마주하고 있다. 나는 20대 때부터 파리에 가서 단기로 체류해왔는데, 오스테르리츠 역에서 소르본 팜데옹 언덕으로 이어지는 라틴 구역이 주무대였다. 여름엔 센 강을 건너 파리 리옹 역에서 초고속 열차를 타고 리옹을 지나 세계 연극 도시 쥐르에 닿곤 했다. 파리 리옹 역에서 출발한 열차가 리옹 파르디의 역에 정차하면, 나는 읽던 책을 접고 차창 밖으로 눈길을 돌려 도시의 분위기를 접하려고 했다.

20년 가까이 파리-프로방스-지중해 열차를 타고 통과만 하던 리옹에 발을 디딘 것은 5년 전 여름이었다. 나는 대학촌 숙소에 여장을 풀자마자 뤼미에르 영화박물관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밤이면 고대와 중세의 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한 구도심으로 향했다. 프랑스의 유서 깊은 고도(古都)들은 낮과 밤의 모습이 확연히 다르다.

우리처럼 24시간 무분별하게 불야성을 이루는 것과는 달리, 그곳 사람들은 집 안에서 요리를 해서 저녁 식사를 나누고, 그 사이 밖은 철쭉 같은 밤의 고요 속에 한 줄기, 두 줄기, 빛이 켜지며 성당이나 탑이나 성(城) 전체,

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마을 전체가 한편의 사진, 한 폭의 그림으로 되살아난다. 시간에 쫓겨 걸릴기식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여행자로서는 이런 장관을 경험하지 못한 채 늙고 쇠락한 도시의 인상만 가지고 떠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가장 먼 것, 가장 깊은 것, 가장 오래된 것에서 탄생한다. 역사와 전통이 깊을수록 장엄적인 실험과 놀이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기 좋다.

아일랜드와 영국의 켈트적인 전통과 유산이 현대 환상 서사와 영화의 원동력이 된 것이 그 예이다. 리옹은 유네스코에서 선정된 세계 문화유산 창도시 첫 번째 ‘빛의 도시’이다. 그리고 우리의 빛고를 ‘광주’는 지난 해 세계 열 번째 ‘빛의 도시’로 선정되었다.

평면화에 거리를 작동시킨 것이 원근법이고, 이 원근법에 움직임을 준 것이 영화이다. 원근법과 영화는 결정적으로 ‘빛’의 원리를 작동시킨 것이다. 리옹은 이 빛을 활용하여 영화라는 신세계를 창조한 출발지이다. 그리고 그것은 빛의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담금질해온 리옹 사람들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가 즐겨 새기는 프랑스 속담이 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사랑하라.’ 우리는 자기가 가진 것이 어떤 것이고, 얼마 만인지 자각하고 못하고, 자각했다 하더라도 깊이 돌보고 지속적으로 탐구하지 않은 채, 외부의 환경만을 탓하는 경우가 많다. 전주(음식), 부산(영화), 광주(빛)에 이어 이번에 통영(음악)이 유네스코 세계 창도시로 선정되었다. 매년 4월이면 음악제에 참가하기 위해 통영으로 향하던 나이에 기쁜 마음으로 소식을 접했다.

이에 비해, 작년 광주의 빛의 도시 선정에 나는 별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대단한 상이나 선정에는 유관기관의 노력과 정치력이 관여하는 것이 다반사이다. 이러한 외적인 요인 이전에 되새겨보아야 하는 것이 따로 있다.

세계를 향한 소통과 공감의 몸짓 이전에 그곳의 하늘과 땅, 그리고 그곳의 삶과 문화를 일구어온 사람들, 그들이 आरो세겨온 합일된 정신의 힘이 그것이다. 정신이야말로 최소한의 것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일구어내는 마법 같은 창의력과 생산력의 본령이다.

12월 끝자락, 빛의 도시 광주로 향한다. 한 해를 마감하는 동글고 온화한 빛과 새해를 여는 힘차고 신성한 빛을 기대한다.

<소설가·동시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광주-대구 동반성장 상생협약 16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사에서 열린 ‘광주~대구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약식’에 참석한 윤장현 광주시장과 권영진 대구시장 등이 협약서에 서명한 뒤 조영표 광주시의회회의장·이동희 대구시의회의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광주시·전남도 지방교부세 대규모 감액 막았다

행자부 1조2000억 감액 심사서

정부부처 설득 1억3천만원 감액

전남도가 2016년도 지방교부세 대규모 감액 사태를 막아냈다. 행정자치부가 전남도 지방교부세 중 1조2000억원을 감액 심사대상으로 해 당초 상당한 금액이 감액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전남도는 16일 “행자부의 교부세 감액을 막기 위해 지난 11월 초부터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관련 사업에 대한 정당성과 시급성을 설득해 7000만원 감액하는데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광주시(6000만원)

와 함께 전국 최저 수준이다. 전남도 본청은 아예 감액이 없었고 시·군에서 모두 합쳐 7000만원의 교부세가 줄었다. 반면 경북도가 59억5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교부세가 감액됐으며, 서울(52억7100만원), 강원(51억8800만원), 부산(46억8500만원), 전북(40억7900만원), 인천(33억2800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국 15개 시·도의 지방교부세 감액 규모는 318억9400만원에 달한다.

전남도의 감액심사대상은 주로 국토교통부의 지방도 건설사업으로, 감액됐다면 사업 연기가 취소 등도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역축제 육성·지원 조례안’ 가결

권영영 전남도의원 발의

권영영 전남도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지역축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6일 제30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에 따라 향후 전남도는 우수한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역축제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라남도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이 심의위를 통해 매년 시·군에서 신청



하는 지역축제 중에서 1시간 1개 축제를 전라남도 대표축제로 선정하게 된다.

또 지역축제의 내용과 운영능력, 개최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전남도 대표축제 선정 및 예산 지원여부 결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권 의원은 “지역축제는 지역을 홍보함으로써 이미지를 제고하고, 주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화합을 도모하며, 지역관광산업 발전 등의 다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관련 조례의 제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의료광고심의의필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드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6/7F 라식센터
4/5F 수술센터
2/3F 외래진료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극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상무지구 방면
운암동 방면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